

2024. 6. 20.(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0일 오전 06: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차량운영처장	김현철	6311-9650
부장	김일온	6311-9659
담당자	전경하	6311-9662
관련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5쪽

올 여름 지하철 냉방 이용 방법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 객실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 가장 시원, 객실 중앙부 가장 더워
- 추위를 느끼는 승객의 경우 약냉방칸 이용 추천...‘또타 지하철’앱으로 칸별 온도도 확인
- 평년보다 일찍 시작한 더위에 냉난방 민원 급증...총 불편민원 중 86.1%가 냉난방 관련
- “정기적으로 냉방기 점검 및 청소 실시...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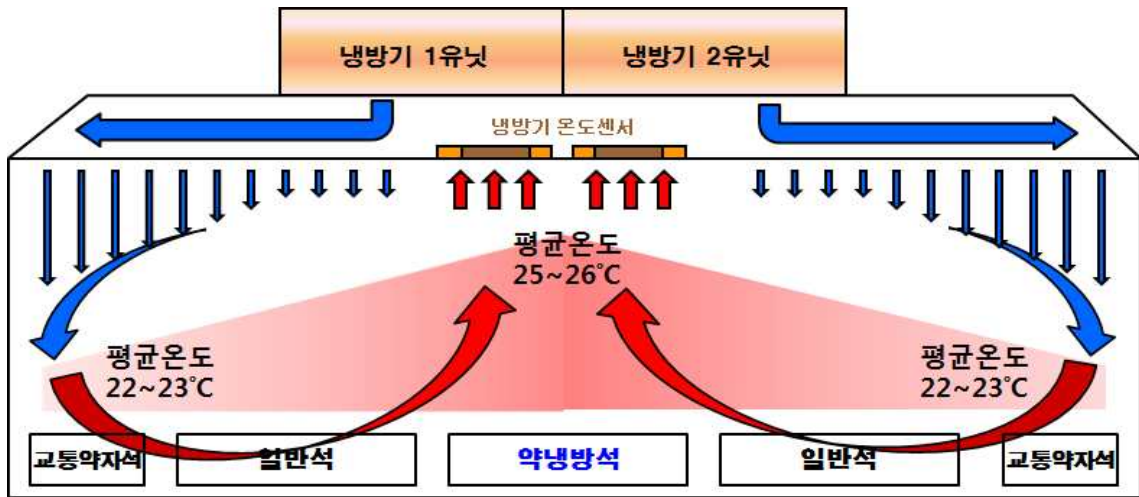
올여름 폭염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하철 내에서는 벌써 ‘덥다, 춥다’ 온도전쟁이 시작되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여름철 냉방 가동 열차 내에서 본인의 체감 온도에 맞춰 시원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 유의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시원한 곳은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춥다고 느끼면 객실 중앙부로〉

열차 내 냉기의 흐름에 따라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객실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이며,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객실 중앙부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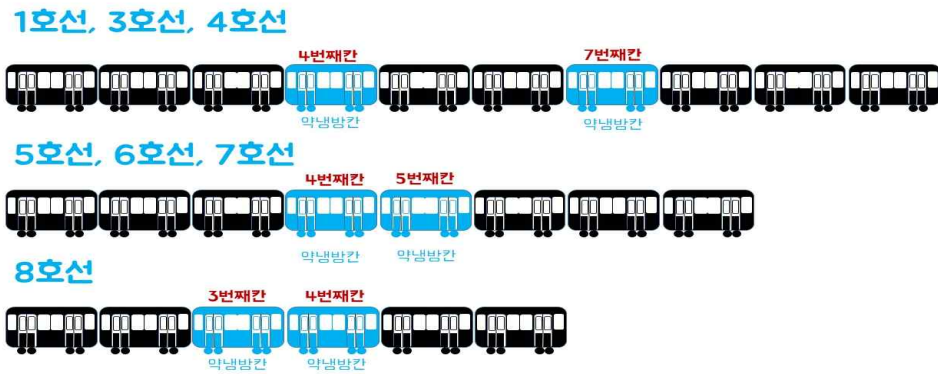
서 본인의 체감 온도 상태에 맞춰 열차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면 더욱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 전동차 객실 내 공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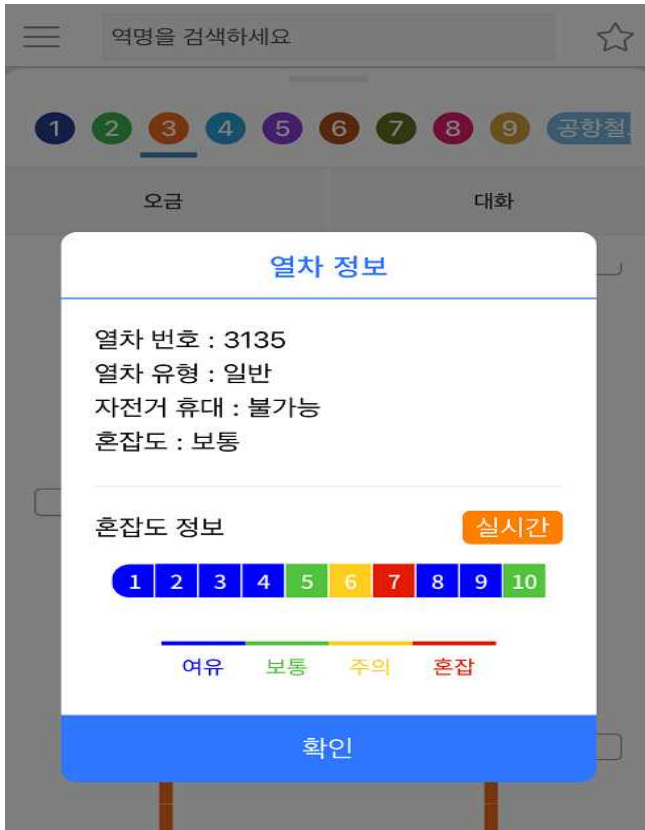
- 공사는 냉방 가동 시 전동차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좌석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2~4℃ 정도 나며 승객이 많은 경우 최대 6℃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열차 내에 있더라도 덥다고 느끼는 승객과 춥다고 느끼는 승객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다.
- 추위를 느끼는 승객의 경우 일반칸에 비해 1℃높게 운영되는 약냉방칸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약냉방칸은 1,3,4호선에서 4·7번째 칸이며 5,6,7호선은 4·5번째, 8호선은 3·4번째 칸이 해당된다. 2호선은 혼잡도가 높아 약냉방칸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 여름철 전동차 일반 칸의 냉방기 설정온도는 24℃로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일반칸	24℃							
약냉방칸	25℃	-	25℃	25℃	26℃	26℃	2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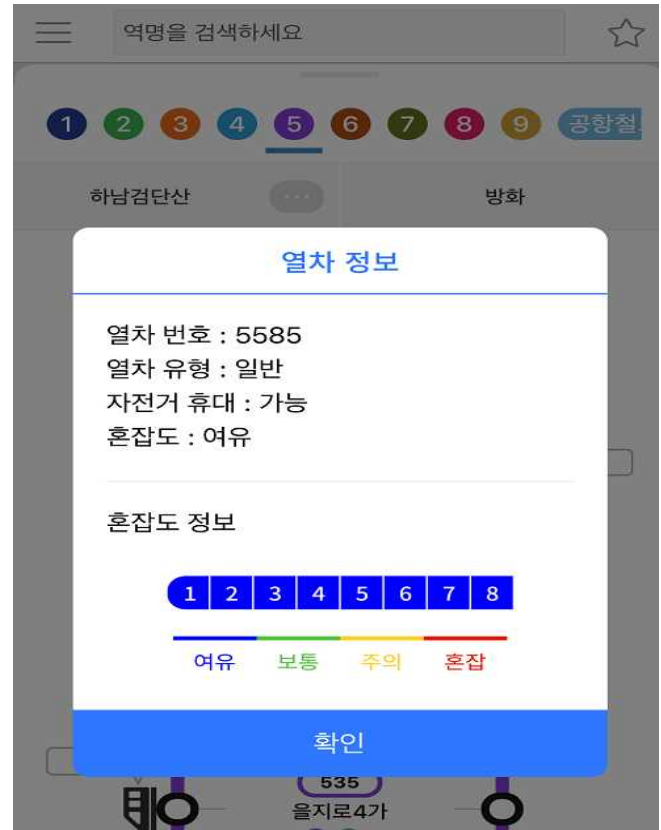


▲ 호선별 약냉방칸 위치

- 열차가 혼잡할 경우 객실 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 공식 앱인 ‘또타 지하철’에서 열차 내 혼잡도 정보를 확인하여 덜 붐비는 칸을 이용하는 것도 또 다른 팁이다.
- 2호선 본선과 3호선은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고 있고, 2·3호선을 제외한 1~8호선은 직전 3개월, 요일별, 10분 평균 혼잡도를 분석한 통계성 혼잡도 정보로 대체 제공하고 있다.



▲ 3호선 실시간 혼잡도 정보



▲ 5호선 통계성 혼잡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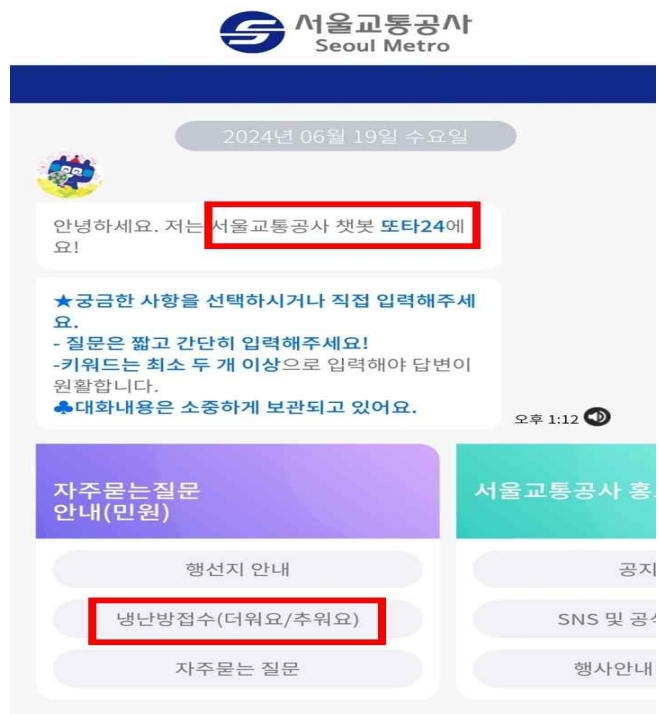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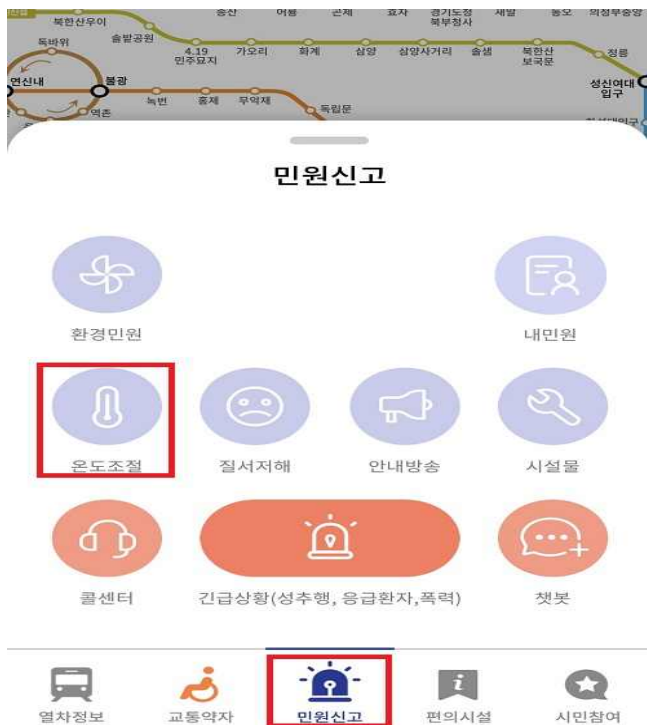
〈평년보다 일찍 더워진 날씨에 냉난방 불편 민원 급증〉

□ 평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한 올해는 냉난방 불편 민원이 4월부터 급격히 늘었으며,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불편 민원 59,386건 중 냉난방 불편 민원(‘덥다’ ‘춥다’)이 51,145건으로 86.1%를 차지한다.

○ ‘덥다’ ‘춥다’ 냉난방 불편 민원(‘24년 1월~6.14) (단위: 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1~6.14.)
2024년	335,827	23,171	28,331	35,940	90,967	106,273	51,145

□ 냉난방 관련 민원은 고객센터(1577-1234)나 ‘또타지하철’ 앱, 챗봇(chat.seoulmetro.co.kr)을 통해 접수된다.



▲ ‘또타지하철’ 앱 (‘민원신고’→‘온도조절’) 및 챗봇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열차 승무원도 쾌적한 객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냉방 장치 취급과 안내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절기(6.1~9.30)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 냉방 장치와 송풍기를 가동하는 등

시간대별 승객의 혼잡도에 따라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조절하고 있다. 또한, 냉방 민원 발생 시, 양해 안내방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정기적으로 냉방기 가동상태 점검하고 청소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냉방 성능이 개선된 새 전동차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승객 여러분께서도 지하철 이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